문화예술정책동향

<인천시 주요사업>

□천, 새 정부와 ‘정책 교감’ 시작한□

인천시 정책과 새 정부 공약 잇기가 본격화됐다. 문화예술 관련으로는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는 인천예술인복지 TFT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사업을 발굴한다.

□민대학 운영·아트마켓 활성화… 인천시 ‘5개년 문화정책’ 밑그□

인천시가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의 밑그림인 ‘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안’을 발표했다. 인천 문화예술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‘인천문화포럼’도 출범했다.

□정건전화 성과, 시민행복에 쓴□

시는 제1회 추경예산을 9조원을 넘게 편성하였으며 문화와 예술분야 추경예산안을 보면 아트센터 개관 43억원,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 20억5천만원 등 문화가 넘치는 문화성시 인천구현에 총 129억원이 투여한다.

‘인천문화포럼’ 출범…문화예술계 100명 참□

인천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인천문화포럼이 출범했다.

□천시 개항문화플랫폼 조성 총력… ‘문화성시’ 꿈꾼□

인천시가 ‘개항문화플랫폼’ 조성에 힘을 쏟는다. 민선6기 핵심 사업인 ‘문화성시 인천’의 일환이기도 하다. 개항문화플랫폼은 중구 아트플랫폼 일대의 개항장 지역을 문화로 재해석한 것이다.

↳ 인천시, 문화성시 문화주권사업 개항문화플랫폼 조성 본격 가동

<영상 · 콘텐츠>

□시아를 잇는 영상 콘텐츠 유통의 중심에 선 인□

문화관광체육부의 국제 다큐멘터리 마켓 지원 사업에 인천시의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과 인천다큐멘터리 포트가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.

↳ 관련 보도자료

□천영상위-미스틱엔터테인먼트 독립영화 제작 손잡기□

인천영상위원회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독립영화 제작에 협력함에 따라 인천의 독립영화 제작에 청신호가 켜 질 전망이다.

‘3박자 영상산업’ 전진기지로 뜨는 인천□

인천이 ‘영상문화도시’로 우뚝 선다. 각종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은 물론 국제 행사까지 연이어 열려 영상 분야의

신흥도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.

□5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□

디아스포라영화제는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,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주관하는 행사로, 지난 4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으며 지역의 내실 있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.

<문화시설 · 공간>

□천 옛 송학사 건물, 음악창작 공간 탈바□

과거 국군 기무 부대의 주둔지였던 인천 ‘송학사’가 부평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.

□라이보울 명실상부 인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우□

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송도 트라이보울에서는 2017년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풍성한 공연과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.

□천 중구 생활문화센터 『개항장 문화마당』 개□

중구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시·구비 등 2억 원을 들여 중국문화관광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했다.

<역사 · 문화>

□천시, 개항기 미국인 선교사 랜디스 실물자료 확□

인천시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외국인묘지를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하던 중 개항기 미국인 선교사 엘리 랜디스의 무덤에서 십자가 장신구를 발견하고, 이에 따라 인천시립박물관이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유물을 수습했다고 밝혔다.

□화군, 돈대예술제 연이어 개□

강화군 돈대예술제는 강화군의 가장 중요한 유적들인 돈대를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삼아 아름다운 돈대와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.

□화도에서 다시 쓰는 찬란한 ‘문화왕국’고□

2018년은 고려개국 1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강화의 고려사 연구와 유적 발굴의 의의를 한층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. 이를 위해 인천시는 5대 분야 20개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며 장·단기로 나눠 30년 기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.

↳ 고려 수도 ‘강화도’ 복원…30년간 3조원 투입, 역사문화단지 조성

인천시가 몽골 항쟁 당시 고려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유적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나선다. 향후 30년간 국·시비 등 총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.

<지역 문화>

□화 목마른 주민 위해 ‘찾아가는 공연’

부평구문화재단이 공연장을 벗어나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서점이나 ‘문화사랑방’, 공단 등을 찾아가 음악 공연을 선보이는 ‘2017 찾아가는 문화마실 언플러그드’ 행사를 진행한다.

□천 남동구,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·계획 보고회 개□

인천 남동구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모래내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‘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·2차년도 성과 및 3차년도 사업 계획 보고회’를 개최했다.

<기타>

□천문화재단-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□

인천문화재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지역 문화재 공간정보구축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□칭 인천대중음악전문공연장협회 발족하기□

인천에서 대중음악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클럽과 카페 운영자들이 지난 4월 24일 모여 가칭 ‘인천대중음악전문공연장협회’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□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홍보 방식 개선 업무협약 체□

인천문화예술회관과 (사)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인천의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의 효과적인 홍보방식을 위해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<전국>

‘2016 문화정보화 백서’ 발□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8개 분야별 대한민국 문화정보화 정책 현황과 기관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‘2016 문화정보화 백서’를 발간했다.

↳ 2016 문화정보화 백서

□작권료, 이제 따로 내지 마세□

올해 4월 1일부터 음악 공연 저작권료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.

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선정 계획 발□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‘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선정 계획’을 발표했다.

□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출□

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‘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’를 출범하고,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.

□서관 예산 1조 원 시대 도입, 도서관 기반 강□

2017년 도서관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. 올해 도서관 예산에는 지난해 8,219억 원보다 24% 증가한 1조 187억이 투입되며, 총 장서 수는 1억 600만 권으로 늘어나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.1권이 된다.

2017년 도서관 ‘길 위의 인문학’ 사업 확대 시□

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(사)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‘길 위의 인문학’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7년에는 400개관(2016년 320개관)에서 확대, 시행된다.

□연권 확대를 위한 「저작권법」 시행령 개정 추□

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·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.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.

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‘만남의 광장’ 개□

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‘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– 만남의 광장’을 개최한다.

<추천자료>

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□

본 조사는 2015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콘텐츠 관련 업종의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임.

□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실태조사 연□

문화예술진흥기금 개별지원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 사업추진실태 파악함. 패턴 및 특징 등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사업 개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.

2016 음악산업백□

작년 한해 한국 음악산업의 이슈, 동향과 더불어 정책 및 법제도까지 살펴 볼 수 있도록 발간됨.

□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토론회 “새로운 시대, 새로운 문화정책” 자료□

실효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새로운 정부 와 지역문화재단이 대처해야할 것들에 대해 함께 고민한 토론회 “새로운 시대, 새로운 문화정책”의 자료집.

[redacted]

[redacted] [redacted] [redacted] [